

기고

김 화 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티센크루프와 독일의 주주행동주의

티센크루프(Thyssen Krupp)는 독일의 엘리베이터 제조회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철강과 엔지니어링이 모태인 기업이다.

티센은 1891년에 설립됐고 크루프는 역사가 더 오래돼서 1811년에 설립되었다.

티센, 크루프 두 회사 다 사업 영역 때문에 보불전쟁 이래로 전시에 독일군이 사용하는 장비와 물자를 대량 생산했다.

티센은 창업자의 장남이 나치 전범으로 처벌받아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고 차남은 애당초에 독

일을 떠나 헝가리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2세대에서 기업이 단절됐던 회사다.

크루프는 창업자의 5세까지 경영이 승계됐다가 1967년에 후사가 없었던 5세의 타계 후 그 이름 (Alfried Krupp)을 딴 공익재단에 가족 보유 지분 전량이 귀속되었다.

티센크루프의 2대 주주는 스웨덴의 투자회사 세비앙(Cevian) 캐피탈이다.

티센크루프는 철강 외에도 잠수함, 화학플랜트, 자동차 부품, 조선 등의 사업을 보유하고 있다.

HDW를 인수한 회사인데 214급 잠수함 건조로 잘 알려진 HDW는 1838년에 설립되었고 양자 대전 때 독일 해군의 고성능 유보트를 생산했던(2차 대전 때만 64척) 유서 깊은 조선사다.

티센크루프는 인도의 타타스틸과 유럽지역 사업을 통합하기로 하고 암스테르담에 50대 50의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회사의 경영진에 문제가 있다고 본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Elliott)이 등장한 것은 2018년 5월이다.

작년 7월에 CEO와 감사위원회 의장 레너가 동반 사퇴했다.

트'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회사 경영진이 엘리엇에 시달린 나머지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티센크루프 경영진은 회사를 철강과 소재 부문, 엘리베이터를 포함하는 산업재 부문 두 사업 부문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한다.

CEO가 메르츠로 교체되면서 엘리베이터 부문 매각 계획이 공표되었다.

자본시장의 발달이 낙후되었던 독일도 이제 주주행동주의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社 說

온정 메마르지 않은 광주·전남

겨울철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이 쌓일 때마다 수는 증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이 광주에 이어 전남에서도 100도 이상을 기록했다고 한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는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통해 99억5천 180만원을 모금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시 매년 '희망 나눔 캠페인'으로 모금한 금액 가운데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액수를 모금하며 작년 말 세웠던 목표 금액인 53억4천900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시 매년 '희망 나눔 캠페인'으로 모금한 금액 가운데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액수를 모금하며 작년 말 세웠던 목표 금액인 53억4천900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경제가 어렵다며 다들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 온정의 불씨는 여전히 것같아 마음이 놓인다.

조금만 눈여겨보면 어려운 이웃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 물론 올해 우리 정부 예산 총액 512조원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가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무려 180조원에 이른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job counseling, legal aid, and emergency services.

Advertisement for Honam Shinmun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

화목보일러 안전사용으로 따스한 겨울을...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도 어 느덧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우수를 지나 겨울의 막바지를 치닫고 있으며, 군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나기 소망 총력전도 이제 그 결과가 눈앞에 와 있다.

주택화재의 30%가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이다.

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다.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주택화재로 이재민 발생과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 이 역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였다.

그렇다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화목보일러가 우리 기정을 위협하는 주범이 되

는 것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 이제부터라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설치 및 사용 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아야 한다. 또 사용 시 안전 수칙으로는 첫째 가연물과 보일러는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둘째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며, 셋째 목재를 한번에 많이 넣지 않고, 넷째 젖은 나무 사용 시에는 투입구 안을 자주 청소해야 한다.

Large advertisement for 'Hwanung' (문화응성) featuring two women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